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2015 개관 페스티벌 리뷰

Asia Culture Center
Theater
2015 Opening Festival Review

김성환/데이비드 마이클 디그레고리오 •
피나는 노력으로 한[A Woman Whose Head Came Out Before Her Name]

노력의 대가
최빛나(카스코 디렉터)

제목

계획을 지켜나가는 것이 자신과 단체에게 폭력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계획 자체가 동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계획의 '감각'에 대한 동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에 따라 의도치 않거나 어쩔 수 없는 변화에 대한 조율이 필요한데, 이는 계획 자체에 우연을 심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우리는 가능한 우연을 배제하며, 리스크 없는 멸균된 계획을 강요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게다가 초고속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몇 시간, 내일, 다음 주에 당장 무언가를 해내야 한다는 높은 압력과 즉각성으로 계획의 느슨함보다는 "닥치고 일" 하는 성향이 지배적이다. 퍼포먼스의 제목 '피나는 노력으로 한[A Woman Whose Head Came Out Before Her Name]'에 대해 묻자 작가는 이렇게 대답했다.

"커미션을 11개월 전에 받고 작업을 시작하고 있는데 연극계에서는 인쇄물을 9개월 전에 미리 돌려야 한다고 제목과 작업 개요를 달라고 해서 준거에요."

퍼포먼스 제목은 퍼포먼스의 주제가 아니라 퍼포먼스가 만들어진 상황을 지시하는 것이다. 내용과 제목을 급조하거나 절대 제목을 줄 수 없다는 저항 대신 작가는 이렇게 제3의 방식을 택했다. 물론 퍼포먼스 제목과 퍼포먼스의 관계를 따지는 관객에게는 불편하다. 대신 이 작은 행동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던져준다.

압박과 즉각성의 시대를 살더라도 계획의 음율을, 흐름의 감각을 보유해야 한다. 응수도 저항도 힘들다면 슬쩍 빗겨나간 엇박자를 친다. 서두름의 반대는 느림이 아니라 기다림을 바탕으로 가능한 운율과 리듬이다. 많거나 적거나, 빠르거나 느린 문제가 아니라 리듬과 함께 불연속적인 지속성을 갖는 것이다.

주제

단지 앞서 언급한 상황 때문만은 아니다. 김성환의 거의 모든 작품에서 지시적인 주제를 찾기란 쉽지 않다. 제목이 명시적이지 않은 건 당연한 귀결이다. 가령 그가 만든 한 영화에 대해 "이것은 암스테르담과 성노동, 이주에 관한 영화입니까?"라고 묻는다면, 그는 "예"라고 대답할 수도 있지만 질문한 사람은 도무지 모르겠다는 듯이 다시 반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게 어째서 암스테르담, 성노동, 이주에 관한 영화죠?"

2주가량 집중하여 매해 정기적으로 열리는 아쉬칼 알완의(Ashkal Alwan) ‹홈워크(Home Work)› 프로그램은 '전쟁', '사회변혁', '봉기' 같은 주제에 관한 메시지와 이를 위한 작가들의 "피나는 노력으로 한" 작품들과 강연, 전시 등으로 구성된 밀도 높은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이 주제들을 다루며 특정 메시지를 의도하는 참여 작가들의 노력을 비판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 노력이 전쟁만큼은 아니지만 그것과 비슷한 성질의 고됨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지, 바라보는 이들은 공감과 공동의 해방감보단 오히려 공동의 허탈감을 경험하는 건 아닌지, 나는 의문을 제기한다. 한편 김성환의 작품은 이런 "노력"을 다소 잔인하게 배반한다. 김성환의 초기 비디오 중 하나인 ‹그녀를(Her)›의 첫 장면 중 하나가 떠오른다. 군용비행기에서 폭탄을 떨어트리는 흑백 필름을 두고 내레이터는 나른한 목소리로 그것을 "아름다워 보인다"고 했던 것 같다. 노력 없이 대체 무엇을 말하고자 했을까? 삐딱하게 거리를 두고 폭력을 아름답다고 바라보는 또 다른 폭력이 의도는 아닐 것이다.

김성환은 늘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 "예를 들면"은 그가 대화 중 아주 빈번하게 쓰는 표현 중 하나이다. 그는 특정 기간 경험한 몇 가지 중요한 인상과 경험을 느슨하게 엮어낸다. 그가 베를린의 레지던시를 계기로 주목하게 된 작곡가 윤이상, 그와 비슷한 운명으로 북한을 떠나 '조국'으로 돌아갈 수 없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주 일기를 남긴 소설가 이미륵을 모티브로 하거나, 파스빈더의 ‹불안을 잠식한다› 등이 구체적인 경우들이다. 물론 이들의 공통분모는 이주, 재배치, 그리고 낯섦과 같은 감각이다. ‹피나는 노력으로 한[A Woman Whose Head Came Out Before Her Name]›

Sung Hwan Kim/David Michael DiGregorio •
A Woman Whose Head Came Out Before Her Name[피나는 노력으로 한]

FRUITS OF EFFORT
Binna Choi (Director of Casco)

Title

To make sure that sticking to the plan does not become a form of violence for oneself and the group, the plan itself should not be the driving force, but rather, the group's consent on a certain 'sense' of the plan should come first. Therefore, it becomes necessary to adapt to unintended or inevitable changes in the plan, and this also means that at least some level of coincidence needs to be planted in the plan itself. We live in a generation that tries to minimize coincidence and forces a risk-free, sterilized planning. Even more, in the Korean ultra high speed society, there is a overwhelming tendency towards a sentiment of "just shut up and work", rather than keeping plans loose, based on the pressure and immediacy that urges one to accomplish something right now, within hours, by tomorrow, by next week, and so forth. When asked about the title *A Woman Whose Head Came Out Before Her Name*[피나는 노력으로 한], the artist responded as follows.

"I was commissioned 11 months ago and right when I started working, I was told that they need a title and a concept because, in the performing arts scene, a publication needs to come out 9 months before. So this is what I gave."

So rather than indicating the subject of the performance, this title directs to the circumstance that this performance was made in. Instead of improvising the title and the contents hastily, or fiercely resisting to give a title, the artist chose this third way. Of course, this can be uncomfortable for audiences who put meaning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itle and the performance. Yet, this small gesture shares the following message with 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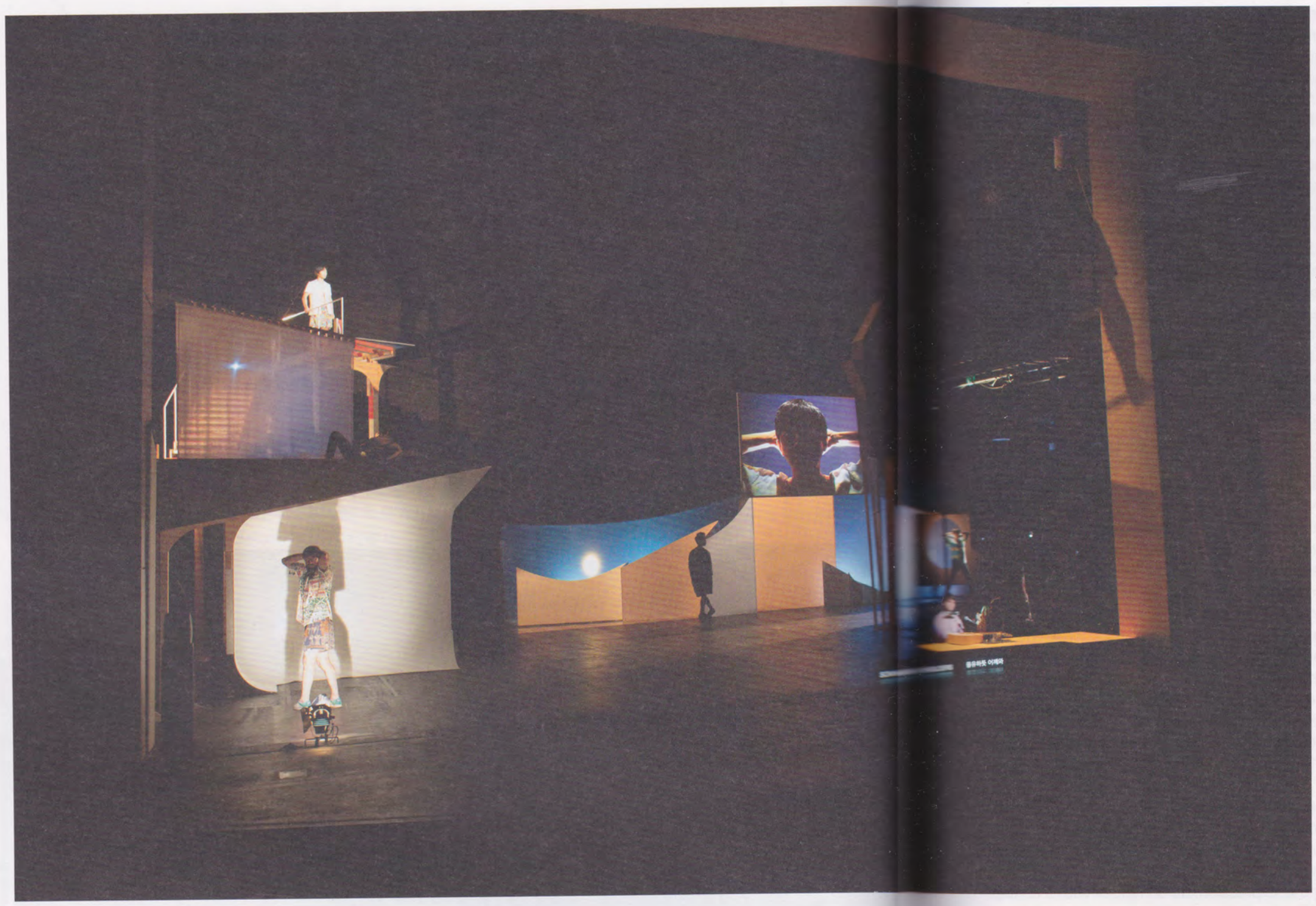
Even if we live in a time of pressure and immediacy, we need to retain the rhythm of a plan, a certain sense of flow. If responding or resisting is not possible, hit an off-beat that slightly escapes the point. The opposite of rushing is not slowing down but keeping the cadence and rhythm, only possible by waiting. It is not an issue of having more or less, or being fast or slow, but attaining a discontinuous continuity of a certain rhythm.

Theme

It's not only because of the above-mentioned circumstances. In almost all works of Kim Sunghwan, it is not easy to find a directive theme. It is a natural consequence to have a non-explicit title. For instance, to ask about his film "is this a film about Amsterdam, sex labor, and migration?" he could answer "yes" but the questioner will not be able to resist and ask again without a clue. "Why is this film about Amsterdam, sex labor, and migration?"

Ashkal Alwan's Home Work is a program that takes place annually for two intensive weeks. It presents a dense program consisting of messages surrounding

Sung Hwan Kim/David Michael DiGregorio, A Woman Whose Head Came Out Before Her Name[피나는 노력으로 한], courtesy of Sung Hwan Kim.



Sung Hwan Kim/David Michael DiGregorio, *A Woman Whose Head Came Out Before Her Name*[피나는 노력으로 한], courtesy of Sung Hwan Kim.

은 국영문이 혼합된 제목을 가지며, 서로 관련 없거나 번역되지 않은 문장의 조합으로 이루어졌다. 스크립트는 3개 언어가 섞여 있고 참여하는 배우들 역시 베를린 출신이거나 베를린에 사는 한국인들이 섞여 있다. 물론 이러한 요소들은 공연이 가진 주요한 형식으로 반영된다. 중복되거나 반복되고, 다른 자리로 옮겨가는 것. 이 모든 것은 가속화의 시간을 따르는 드라마처럼 빠르게 움직이지 않는다. 낯선 감각과 시간이 더디지만 어느덧 확연히 찾아올 뿐이다. 퍼포머들은 머리 뒤에 슬쩍 양팔을 얹고 서서히 45도 각도로 뒤를 돌아보는 동작을 반복하는데 이 동작의 의미는 최소한 중의적이다. 포박이거나 자유인 상태.

김성환의 작품은 무엇을 '말하는가' 혹은 무엇에 '대한' 것인가라는 물음보다 '어떻게 하는 가'라는 질문을 통해 봐야할 것이다. 모든 것이 그렇듯 무엇이라는 대상은 고정될 수 없는 반면 우리는 곧잘 그곳에 결박된다. 포박. 하지만 그 '무엇'과 더불어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고민을 통해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다. 목적지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이 물음에 자유로운 삶의 가능성이 있다.

김성환의 세트가 정사각형과 같은 완결체나 중앙이라는 시점 대신 다중 시점, 그리고 굽어지고, 펼쳐지고, 줄어들거나 넓어지는 비정형의 형태로 구성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

조건

생활의 조건, 일의 조건, 공연의 조건. 결과물과는 달리 늘상 비가시적인 과정과 그 조건은 그에 대한 우리의 유희에 따라 제약으로 혹은 가능성으로 기능할 수 있다.

물론 조건이 저절로 가능성이 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어떤 일의 조건이 충분하거나 완벽하기란 극히 드문 일이다. 그렇다면 가능성은 조건을 주시할 때, 그리고 그 조건에 조율을 가할 때에만 가

distance and seeing violence as beautiful.

Kim Sunghwan always talks specifically. "For example" is an expression he uses very often in conversations. He loosely weaves a few important impressions and experiences he went through in a certain period of time. Yun Isang, a composer that he became interested during his residency in Berlin, motifs of Li Mirok, a novelist who wrote an emigration diary based on his similar fate of not being able to return to his 'fatherland' after leaving North Korea, Fassbinder's *Ali: Fear Eats the Soul* are specific cases. Of course, the common denominator of these is a sense of migration, relocation, and unfamiliarity. *A Woman Whose Head Came Out Before Her Name*[피나는 노력으로 한] has a title made up of Korean and English and also consists of sentences of different languages that are not related or translated. The script is a mixture of three languages and participating performers are also either from Berlin or Koreans living in Berlin. Naturally, these factors are reflected in the essential format of the performance. Overlapping, repeating, moving from one position to another. All of these do not proceed as fast as dramas that follow a time of acceleration. Senses are unfamiliar and time flows slowly, but everything becomes distinctive at a certain moment. Performers rest their arms behind their head and repeat an action of slowly looking back in 45-degree angle. This movement has at least a double meaning. A state of being bound or free.

Kim Sunghwan's work should rather be seen through the question of 'how does he do it', rather than what he is trying to 'say' or what it is 'about'. Like all other things, an object of 'what' can never be fixed, but we are very often tied to it. Bound to it. But we can become free by questioning how we will move along together with that changing 'object.' Forget about the destination. How are we going to move now, here? The potential of a free life lies in this question.

Perhaps this is why Kim Sunghwan's set is constructed in an atypical form of multi-perspective, winding, spreading, shrinking, and expanding, rather than taking the form of a closed rectangle or a central perspective.

Condition

Conditions of life, conditions of work, conditions of performance. Regardless of the outcome, its non-visible process and conditions can become a restraint or a potential depending on how one plays with it.

Of course, a condition does not naturally transform itself into a potential. It is extremely rare to have a condition that is fully sufficient or perfect. If so, perhaps the only way of bringing potential to realization would be carefully observing these conditions and fine-tuning them. This is different from changing the condition by "sweating blood."

Kim Sunghwan makes full use of this 'condition' tuning process, just like he utilizes examples rather than messages. So the condition becomes the format, then becomes the meaning. He spares enough time for tuning the condition in the beginning phase of the cre-

능해지는 것은 아닐까. 그것은 조건을 "피나는 노력"을 다해 바꾸는 것과 다른 이야기다.

김성환의 작품은 메시지 대신 사례들을 활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조건'과의 조율을 활용한다. 조건이 형식, 그리고 의미가 되는 식이다. 그는 대부분의 작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조건을 조율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물론 작업 과정에서도 늘 조건을 주시한다. 생산의 가도를 달리는 이는 할 수 없는 일종의 살핌이고 살림과 같은 일인데, 그것은 조건을 생성하는 어떤 '계'(系)와의 대면을 수반한다. 가령 미술계에 익숙한 작가는 공연계에서 사용되는 다른 임금 지불의 방식을 주시한다. 노동과 시간은 조건을 만드는 데 늘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공연계에서 조명 디자이너나 조명 기사는 상대적으로 높은 보수를 받는 대신 한 곳에 오래 일하지 않는다. 그들을 오래도록 고용할 만한 자금이 넉넉한 곳이 많지 않은 탓이다. 그 결과 공연계에서는 조명에 대한 실험이 충분히 이뤄지기 힘들다.

이러한 조건에 대한 조율과 반응으로 ‹피나는 노력으로 한[A Woman Whose Head Came Out Before Her Name]›은 조명을 집중적으로 사용하고 그것을 실험하는 퍼포먼스가 되었으며, 작가는 배우와 스태프의 임금을 스스로 관리했다. 그리고 작가는 참여 방식에 주목한다. 그의 협업자들은 '프로페셔널'한 관계가 아니며, 전문 배우 역시 기용하지 않았다. 이 비전문성은 숨겨야 할 것도, 노력으로 극복되어야 할 대상도 아니다. 오히려 퍼포머들의 고유한 동작과 정서로 '표현'된다. 그러나 비전문성을 표현한다는 것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작가가 이야기하듯 공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연기, 공연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배우로서 연기하게 된다. 배우됨과 실제 인물 간의 긴장상태. 연기와 비연기가 공존하는 상황으로서의 공연. 역시 노력이 아닌 조율, 유연성의 한 방식이며 양상인 것이다. 상황에 따라 조명기사가 배우로 참여할 수도 있는 그런 연출이다.

시나브로

‹피나는 노력으로 한[A Woman Whose Head Came Out Before Her Name]›의 스크립트(혹은 시)에 작가는 '시나브로'라는 고유 한국어 표현을 쓰는데, 그 표현 뒤에는 '사필귀정'을 논하는 모녀의 대화가 따른다.

여명으로 인해
끌려오듯
아련하게 펼쳐진
달빛의 조명을
시나브로 가리는 건
갈수록 모진 태양이고

이건 엄마 잘못이지
내 탓은 아냐
사필귀정
엄마가 장본인이고
보면 지금도
혼자 분해 가지고
우선 들을 맘도 없으면서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이라는 뜻인 '시나브로'의 시간성과 마침내 올바른 것이 이기게 되어 있다는 '사필귀정'의 시간성이 대면한다. 불확실한 상태로 끊임없이 흔들리는 불가항력적인 미래를 맞이하는 여린 인간상과 고정된 계획 하에 밝은 미래를 건설하는 근대적 시간이 갈등한다. 김성환의 퍼포먼스는 근대 사회 체계와 권위가 끊임없이 생산하고 강요하는 근대의 시간성을 불확실한 시간성으로 '시나브로' 구현한다. "하면 된다", "노력은 성공의 어머니"와 같은 구호 아래 "당장" 혹은 "반드시"라는 시간적 필연성은 우리를 구속하는 족쇄다. 노력의 대가는 자유의 박탈인 것이다. ‹피나는 노력으로 한[A Woman Whose Head Came Out Before Her Name]›의 절과 절, 맥락과 맥락 사이를 이어주는 데이비드 마이클 디그레고리오의 음악은 노력을 강요하는 근대 정신의 처절함과 폭력을 노래한다.

그 노래 덕분에 근육을 수축했다 이완하기 시작한 우리는 움직임을, 색다른 위치와 시점을, 그리고 낯섦에 주목하기 시작한다. 그런데 시나브로 공연은 끝나 있고, 우리는 과연 무엇을 보았는지 무엇에 관한 것인지 이해하기 실패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경험은 남아서, 빛들의 움직임을, 제스처가 형성되고 반사되고, 재연되는 과정을, 그것의 다른 속도를 기억한다. 그리하여 남아 있는. 늘 낯설게, 무엇에도 낯선 그 느낌은 자유, 열려 있음을 경험하는 감각의 이름인 것이다.

ation. During the production period, he also observes these conditions carefully at all times. This process is something that a person racing on the highway of productiveness would never be able to do. In some ways, this is caring, similar to housekeeping. It involves confronting 'fields' that produce these conditions. For instance, an artist used to the visual arts field notices how differently wages are paid in performing arts field. Labor and time always play a crucial role in creating conditions. In performing arts field, the lighting designer or the lighting technician is relatively highly paid, but do not work at the same place for a long period. This is because there are not that many organizations that can bear the high costs of long employment. Thus, it is difficult in the performing arts scene to fully experiment with lighting.

As a reaction and attempt to tune this condition, *A Woman Whose Head Came Out Before Her Name*[피나는 노력으로 한] became a performance that mainly uses and experiments lighting. The artist also managed the wages of performers and staffs himself. He paid attention to ways of participation. He did not form a 'professional' relationship with his collaborators, nor did he hire professional actors. This unprofessionalism is nothing to be hidden or to be overcome through effort. Rather, it is 'expressed' through the performer's unique gestures and sentiments. This needs to be distinguished from expressing unprofessionalism. As the artist mentions, the participants of the performance perform as an actor with a clear desire for acting and performing. There is a tension between the real person and him becoming an actor. A state of coexistence of acting and non-acting. Tuning is different from striving with effort. It is a tool and a form of flexibility. It is a setting that enables a lighting technician to even participate as a performer if needed by the situation.

Sinabro(little by little)

In the script(or poem) of *A Woman Whose Head Came Out Before Her Name*[피나는 노력으로 한], the artist uses a term unique to Korea called 'Sinabro'(little by little). Following this expression, he continues with a conversation between a mother and a daughter, talking about 'Sapilguijung'(Right will prevail.)

like what is drawn in
by mornings
see how a flush light
soft as the moon
is in slow motion
overcast
by the starker sun

it is your fault
not mine
you are the doer
and deeds find names
see
now you fly into a frenzy
first
you let me speak my mind

The temporality of 'Sinabro', meaning little by little without noticing, faces the temporality of 'Sapilguijung', meaning what is right will win in the end. A frail human figure facing the inevitable future swinging constantly in an uncertain state, conflicts with a modern temporality where a bright future is constructed through a firm plan. Kim Sunghwan's performance transforms 'little by little' the modern temporality created and forced by the modern social system and authority, with a temporality of the uncertain. Under slogans like "if you just do it, it will be done" or "effort is the mother of success", the temporal inevitability of "right now" or "no matter what", is after all, a shackle that ties us down. The cost of effort is the deprivation of freedom. David Michael DiGregorio's music that connects verses to verses, contexts to contexts in *A Woman Whose Head Came Out Before Her Name*[피나는 노력으로 한] sings of the horror and violence of the modern spirit that forces effort.

Slowly beginning to contract and release our muscles through this music, we start to notice movement, unusual positions and perspectives, and unfamiliarity. But the performance comes to an end little by little, and we think to ourselves that we have failed to understand what we have seen, and what it was about. But the experience lingers, remembering the movement of light, the process of gestures being created, reflected,and represented, and the different speed. So it remains. Always unfamiliar. This feeling of unfamiliarity of everything is, in essence, the sense of experiencing freedom, of being open.